

27 Sound of Drum - Opera House in Wien

비엔나 오페라 하우스에서 뒤늦게 깨달은 공연 관람 예절



M 비엔나에 아시아나가 취향을 했다. 여행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 투어**가 진행되었다. 일반인들과 달리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일정은 신경이 많이 쓰였다. 개인적으로 여정의 진행과 무관하게 공연을 하나는 꼭 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역시 우여곡절은 있었다. 숙소가 이게 무어냐? 식사가 맛이 없다. 업계 분들이라 이해의 폭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오히려 표현 못할 내면의 **스트레스**로 쌓여갔다.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원하는 방으로 옮기고 식사 메뉴를 조정하며 정해진 일정에 최선을 다했다. 대신 일과를 마치고 나서는 자유로울 것을 바랬다. 그러나 유럽 여행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저녁이면 “한잔 할 곳이 어디냐? 재미있는 곳에 같이 가자” 등의 요구가 쏟아졌다. 유럽에는 밤 문화가 발달해 있지도 않다고 대답했다. 급기야 팀의 단장이 “왜 그렇게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냐?”고 나무라듯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중년들의 밤 문화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런 나의 말 못할 고충을 이해한다고 위로 건네는 사람도 있기는 했다.

다음날은 일정이 하루 종일 모두 흩어져서 각자 따로 움직이는 자유 시간이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해 혼란스러워 했다. 그러면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가?’였다. 이해하기 힘들기도 했고 일면 이해가 되기도 했다.

나의 일정은 비교적 단순했다. 오전에는 숙소에서 편히 좀 쉬고 점심 식사 후에 한국에는 아직 개념이 없었던 ‘비엔나 자연사 박물관’을 갔다가 저녁에 **음악 공연**을 볼 계획이었다.

27

O 점심에 숙소 근처의 현지 식당에서 일행 중에 한명을 만났다. 나의 고충을 이해 해주는 분이라 반갑게 인사를 했다. 자연스럽게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그는 프로이트 박물관을 간다고 했다. 그는 나의 **공연 관람** 계획에 관심을 표했다. 같이 가겠느냐고 제안했고 그는 그러자고 했다.



S 공연 티켓 판매처로 갔다. 요즈음처럼 인터넷 예매가 일반화되기 전이었다. 좋아하던 무티는 아니어도 카르멘이나 토스카를 기대했으나 없었다. 오케스트라 공연도 없어 오페라를 선택했다. 작곡가가 스트라우스였다. **스트라우스가 오페라를?** 의아했지만 선택의 폭이 좁았다.

자유였으나 다수의 요청으로 저녁이 한식당에 예약이 되었다. 식당에서 인원을 확인하고 열른 밥을 먹고 어디 가냐는 질문들을 뒤로하고 공연장으로 향했다. 아 공연을 이렇게 ..

공연장이 화려했다. 예약한 **3층의 개별 방**으로 갔다. 코트를 맡기고 공연이 시작되었다. 거울이나 공연장 안은 따뜻했다. 초기 오페라여서 인지 드라마틱한 주제가 있지는 않았다. 당연히 **처음 듣는 음악**이었다. 저녁으로 먹은 찌개가 사이렌의 유혹처럼 **눈꺼풀**을 잡아 당겼다. 허벅지를 짹 붙잡았다. 그런데 어디서 ‘**쿵 쿵**’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주변을 봤으나 내가 잠깐 졸았다는 사실만 발견했다.

H 후다닥 자세를 고쳐 앉았다.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꽉 쥐고 공연에 집중했다. 잠시 후 현악기의 음울 속에 ‘**쿵 쿵**’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들렸고 또한 느껴졌다. 내 머리가 **옆 벽을 세차게 들이받는 소리**가.. 옆 좌석 관객에게 너무 미안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그 소리를 더 들어야 했다. **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PS 이후에는 공연을 보기 전에 절대 저녁을 먹지 않는다.